

조선시대 왕실 한글 자료

[Royal Vernacular Materials in the Joseon Dynasty]

박부자

목차

1. '왕실 한글 자료'의 개념과 범위
2. 왕실 한글 자료의 구체적 사례
 - 2.1.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 2.2.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사용한 한글 자료
 - 2.3. 국왕 및 왕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
3. 왕실 한글 자료의 특징 및 가치

오늘의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한글 자료
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왕실 한글 자료’의 개념과 범위

→ “왕실 한글 자료”는 왕실 자료 가운데 한글로 표기된 자료라 할 수 있음.

→ 왕실 자료 :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 혹은 사용하였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김문식 2003)

→ 이에 의거하여 “왕실 한글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②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

③ 국왕 및 왕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 (김봉좌 2015)

2. 왕실 한글 자료의 구체적인 사례

2.1.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a.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자료
- b.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것을 (당시 한국어로) 언해(諺解: 한문을 당시 한국어로 번역) 한 자료.

a.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자료 - 왕실언간

-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자료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왕실언간이 대표적임.
- 왕실언간은 왕의 편지, 왕비의 편지, 공주나 그 후손들의 편지, 궁인이 대해서 혹은 직접 쓴 편지 등이 남아 있음.
- 민간의 것에 비해 왕실언간은 그 수가 적고 초기의 언간이 별로 전하지 않음.
- 민간의 언간은 15세기 말의 언간부터 전해지는 반면, 현재 전하는 왕실언간은 16세기 말 선조(宣祖, 조선의 제14대 왕)가 보낸 것이 가장 이룸.

a.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자료 - 왕실언간

- 이는 궁중과 민간 사이에 서로의 필적(筆蹟)이 남는 것을 금기로 삼았기 때문.
- 순조 비 순원왕후가 보낸 편지 중 여러 사연을 적은 끝에 “세초(洗草: 원고를 물에 빨아 먹물을 빼는 일)하라”고 당부한 편지가 실제 남아 있음.
- <한중록>에는 궁중과 민간 사이에 서로의 필적(筆蹟)이 남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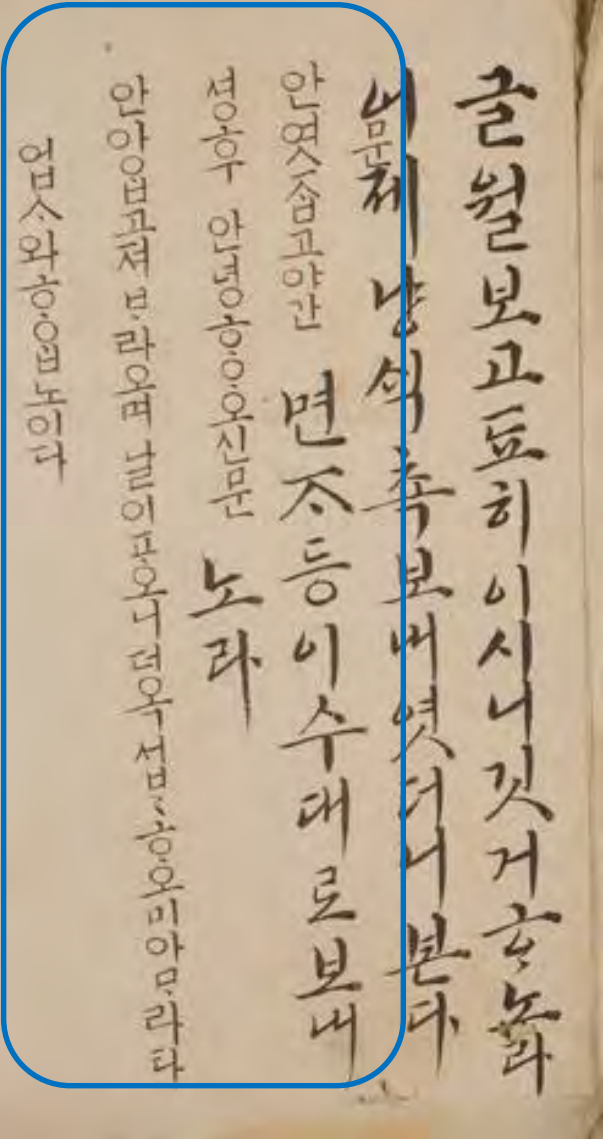
a.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자료 - 왕실언간

바깥 편지가 궁 안에 들어가 함부로 돌아다닐 만한 것이 아니고, 안부를 묻는 것 외에 사연을 많이 적어 보내는 것은 (궁중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니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편지에 집안 사정만 아시고 도로 그 편지에 글을 써서 보내라” 하시기에 … 그 종잇머리에 써 보내고, …집에서도 (대궐에서 온 편지를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훈계대로 내 편지를 다 모아서 세초(洗草)하였으므로 내 필적이 전함직한 것이 없다.

<한중록 권1>

1

2



<1. 숙명신한첩: 숙명공주(딸) → 효종(아버지), 1652~59>

문안 녀좁고 야간 성후 안녕하오신 문안 아옵고져
 바라오며 날이 푸오니 더욱 섭섭하오미 아므라타 업스
 와 하옵노이다.

[문안 여좁고 밤사이 성후(聖候 : 임금의 평안한 소식. 또는 임금 신체의 안위) 안녕하신지 문안 아옵고자 바라오며 날이 거듭되니 더욱 섭섭함이 무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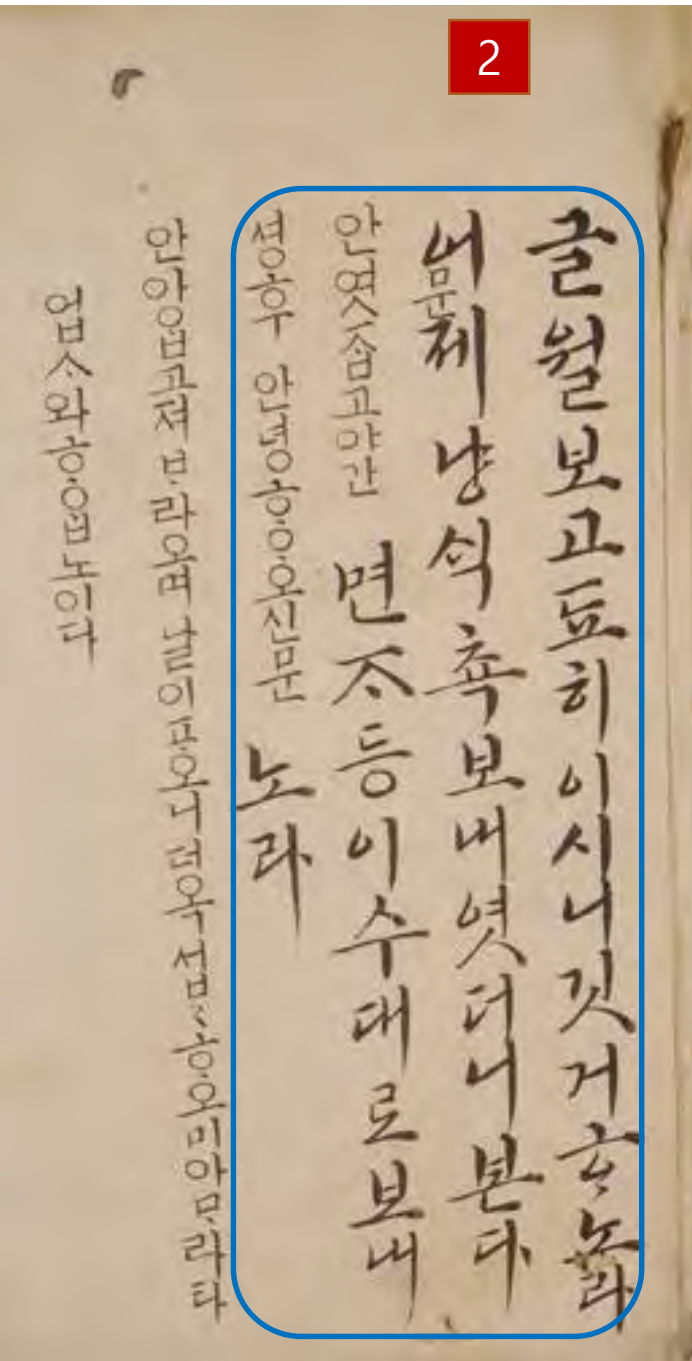
<2. 속명신한첩: 효종(아버지)→ 속명공주(딸), 1652~59>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흐노라. 어제 냥 식축 보내엿더니 본다. 면즈등 이 수대로 보내노라.

[편지 보고 잘 있으니(네가 잘 있다고 하니) 기쁘다. 어제 양 색 초를 보내었는데 보았느냐? 면자등을 이 수대로 보낸다.]

→속명공주가 보낸 편지에 아버지인 효종이 답장을 써서 보낸 편지.

→ 보낸 편지에서 집안 사정만 알고 “도로 그 편지에 글을 써서 보내라”는 <한중록>의 언급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



a.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자료 - 왕실언간

- 왕의 편지

→ 선조, 효종, 헌종, 숙종, 정조, 순조 등의 편지가 남아 있음.

→ 왕실 가족인 딸, 어머니, 장모, 누나, 여동생, 외숙모, 며느리 등에게 보낸 편지임.

→ 정조의 언간은 모아서 첩으로 만들어졌음. 어렸을 때 필적부터 장성하여 왕위에 오른 이후의 필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왕실 언간과 사대부 언간을 통틀어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이후까지 한 사람이 언문으로 작성한 편지가 남아 있는 것은 정조의 것이 유일함.(박부자 2015)

정조 원손 시절에 외숙모에게 쓴 편지 (1755~1759, 4~8살)

오래봉서미
 고은고섭고섭
 니그제봉서보원
 고은반^갑오래
 元孫

상풍의
 기우평안호호
 신불안아음기워
 비라옥외완다오
 래오나섭고집
 수와호입다니어
 제봉서보원고
 든반갑수와
 호오며
 한아바남겨오로
 평안호오시다호
 온니깃브와
 다^호호^호이
 元孫

정조 원손 시절에 외숙모에게 쓴 편지 (1755~1759, 4~8살)

정조 세손 시절에 외숙모에게 쓴 편지 (1755~1759, 9~10살)

일기극한호오나
 기은평안음은신문안아고집보
 옥여오래봉서도못음은선보이
 디내입더니돌아져드러오
 옥든든음옥드러옥취
 지아나호나디알나카타호
 옥온론나모라음여겨오사
 다호고단이뜻이살다음호
 니한아바남과인마니일
 보내오삼보하오며슈미못
 드려오니후일부대나서거
 든드려보내오슈
 世孫

중풍
 동광환희 전남
 남한의
 기우평안음은신문안아음
 드려보하오며겨오사
 온론나모라음여겨오사
 다호고단이뜻이살다음호
 니한아바남과인마니일
 보내오삼보하오며슈미못
 드려오니후일부대나서거
 든드려보내오슈
 世孫

정조 재위 시절에 외숙모에게 쓴 편지 (1793, 42살)

정조 세손시절에 외숙모에게 쓴 편지
(1755~1759, 9~10살)

...슈대 못 드려오 " 니 후일 부대 낫거든 도
여보내오쇼셔

[...수대(守大)가 못 들어오니 후일 (병이) 낫
거든 부디 들여보내옵소서.]

→ 외종형제인 수대(守大)를 꼭 들여 보내달
라고 청함. 또래 친구가 없는 궁에서 왕이
어린 시절 외가나 처가의 친척 아이들이 들
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함.

기은평안아이신문안아읍그집보
우며오래봉셔도못함은나섭비이
디내읍더니돌아져드려오
우니듣는음음드려오기쉽
지아니후구니일나가라함
우우온큰나오라중여겨오사
다함고단이이못이살다함호
니한아바님귀인아닌일
보내오심부하오며슈대못
드려오니후일부대낫거
든도여보내오쇼셔

世孫

b.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것을 언해한 자료- 선조국문유서

→ “선조국문유서”는 1593년(선조26) 9월에 임진왜란 당시 선조(宣祖)가 내린 한글 유서(諭書)는 왕의 명령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

* 유서(諭書): 조선시대 왕명 문서 중의 하나. 주로 지방 관찰사에게 군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내리는 문서로 발급되었는데, 관원과 백성들을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쓰임.

→ 이 유서(諭書)는 백성들을 깨우칠 목적으로 발급한 문서로 74.0cm×47.0cm 크기의 문서임.

→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빅섬의게너는글아라

니름이너샤되너희처심의예손디후리여

기며도르희의심호디예손디드러던거시너나라히주길가도두
은빅의말오서근한후여다나오면너희를각별이죄주디아니
즈세아라나오거너후리인사름온만히더브러나오거나아모란고
싱심도전의먹던모음물먹디말오셀리나오라이브들각쳐
오라너희등의혈마다어버이쳐즈업손사름일다네사던디도라
예게도주글거시오나라히평등은휘면너흰들아니뒤오츠
고경상전라도애고드기이석예곧과글리제싸히곧아니건너
틸뿐이아나라강남비와우리나라비를함후여바르예나라
러주글거시너너희서르닐러그전으로수이나오라

만려의십이문련구본

일



빅섬의게너는글아라

니름이너샤되너희처심의예손디후리여
기며도르희의심호디예손디드러던거시
은빅의말오서근한후여다나오면
즈세아라나오거너후리인
싱심도전의먹던모음물먹디말오
오라너희등의혈마다어버이쳐즈업손사
예게도주글거시오나라히평등은휘
고경상전라도애고드기이석예곧과글리제싸
틸뿐이아나라강남비와우리나라비를함후여바르예나라
러주글거시너너희서르닐러그전으로수이나오라

만려의십이문련구본

일



諭書之寶(유서지보)

나기근네본모음이아너나라나오다가예손디들러주글가도너
주길가도두러이제드리나오디아니너이제란너희그런의심
죄주디아니너네나라고등예를자바나오기나예후는이른
거나아모란고이사현남천을론후여버술도를일거시너너희
이브들각쳐잡슈의손디다할외여시너싱심도의심말고모다나
네사던디도라와예로도모살면우연후라이제곧아니나오면
아니뒤오츠라후모버담병이황히도와평안도애고드후은
러주글거시너너희서르닐러그전으로수이나오라

b.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것을 언해한 자료- 선조국문유서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

임금이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너희를 따로 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에 왜적을 잡아 나오거나 왜적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서 나오거나 잡혀간 사람을 데리고 나오거나 어떤 공이 있으면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벼슬도 시킬 것이니 너희가 절대 전에 먹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중국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국에 들어가 다 분탕(焚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까지 휩쓸려 죽을 것이니 너희가 서로 이야기하여 그 전에 빨리 나오라.”

<선조국문유서(1593)>

b.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것을 언해한 자료- 선조국문유서

→1592년(선조25) 4월 왜적이 침략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보름 만에 한성을 버리고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감. 그러나 이순신·권율 등의 관군과 의병의 활약, 명나라 원군의 진격으로 왜적은 수세에 몰려 동래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김해, 창원, 양산, 밀양 등 경상도 해안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음. 그리고 부근의 백성들은 왜적에 투항한 경우가 많았음. 1593년 9월 당시 해주(海州)에서 한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던 선조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왜적에 투항한 백성들을 회유하여 불러내고자 이러한 명령 문서를 발급한 것임.

b.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것을 언해한 자료-영조어제류

- 영조는 한글본 어제류를 많이 남긴 왕 중 하나임.
- 특히 영조는 자신이나 세자(혹은, 세손), 또는 신하들, 나아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하여 어제류를 지었음. 대부분 한문본이지 만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가 한글로 언해되었 음.
-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 『어제경세문답속록(御製警世問答續錄)』, 『어데조훈(御製祖訓)』, 『어제(御製)』 등을 비롯하여 『어제계주륵음(御製戒酒綸音)』 과 같은 어제 율음도 여기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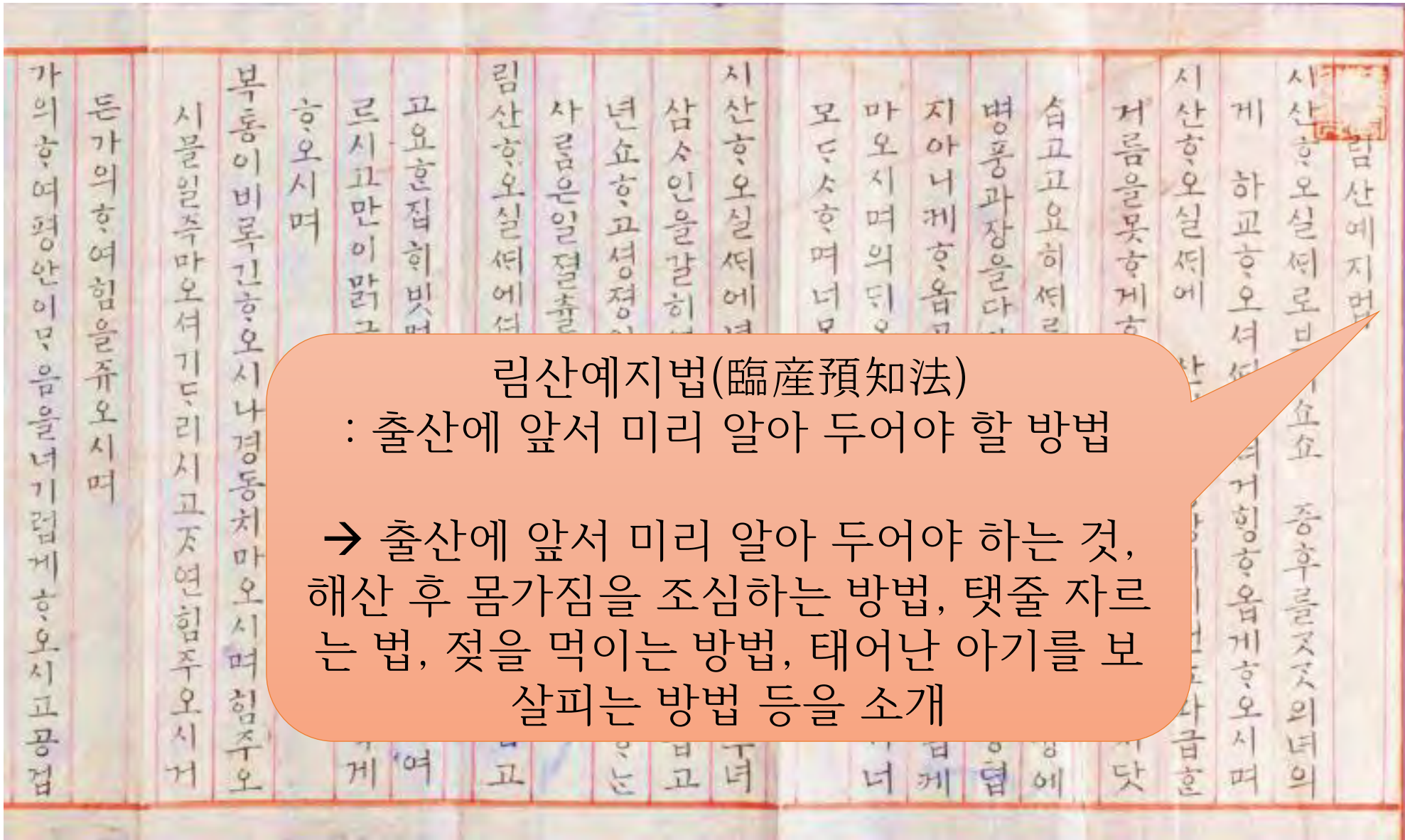
b.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작성한 것을 언해한 자료-영조어제류

- 영조 어제류는 백성과 관원을 대상으로 한 윤음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필사본임.
- 영조 어제류 중 한글필사본은 유일본으로 대부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음.
- 영조 어제류 한글 필사본은 비단 표지, 최상품 종이, 판식(版式)을 붉은 먹(간혹 푸른 먹)으로 일일이 그려 넣는 등 어람용(御覽用)의 특징을 보임.(박용만 2004)

2.2.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

-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는 주로 왕실 문화를 익히기 위한 지침서나 왕실 인물의 교육을 위한 자료들임.
- 왕실의 출산지침서인 『림산예지법』, 왕실 복식 지침서인 『스절복식조장요람』, 돌상에 올렸던 왕실 『천자문』, 왕실 인물의 교육을 위해 간행된 각종 한글자료가 포함됨.
- 왕실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한 왕실 한글 자료는 왕실 인물(특히 여성)의 교양과 독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임. (황문환 2016)
-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지만 왕실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a. 왕실의 출산지침서 『림산예지법』 (장서각 소장)



<“림산예지법(출산에 앞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것)” 중>

복통이 안이 겨오실 췌에는 좌와를 임의로 하오시고 좌로 곽탕의 빅슈라를 화하여 [격]노오시며복통이 비록 깊어오신 췌나 곽탕에 빅슈라를 화하여 미역국이 덩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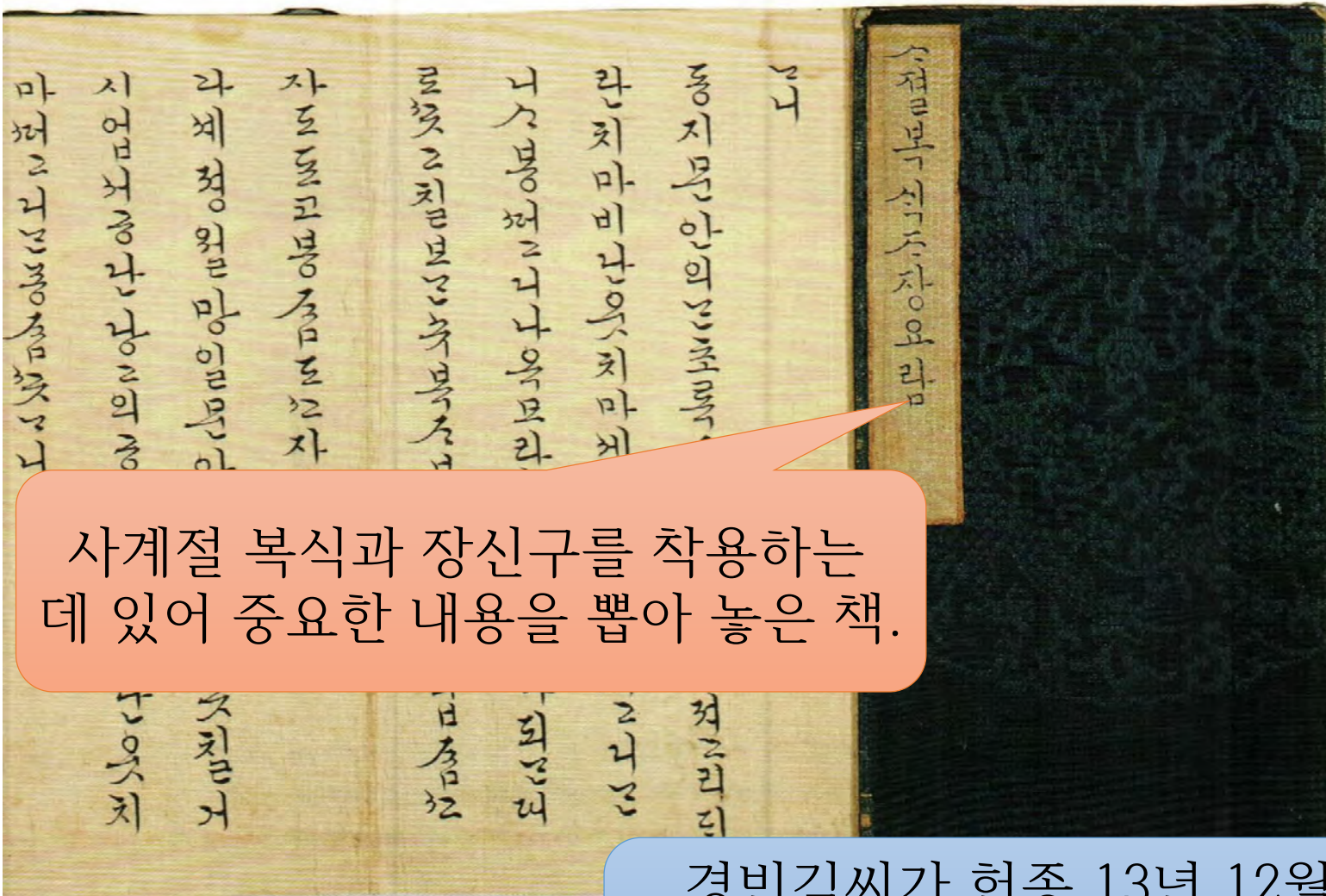
어 해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역국과 미역국을 먹게 하여 순산하도록 도왔음. 오늘날 해산 이후 미역국을 먹는 풍속과는 다름.

(주영하 2005)

이 비록 심하신 때라도 곽탕(藿湯)에 흰밥을 말아 아주 덩게 하여 강면(強勉: 억지로 애씀)히 자주 드시어 원기를 돕게 하시며]

복통이 안이 겨오실 췌에는 좌와를 임의로 하오시고 좌로 곽탕의 빅슈라를 화하여 노오시며
반일심통이 케민하오시거든 빅청하든 두술을 두사
복통이 비록 깊어오신 췌나 곽탕에 빅슈라를 화하여
미역국이 덩게 하여 강면하여 자주 드시어 원기를
돕게 하시며

b. 왕실의 복식 지침서 『스절복식조장요람』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계절 복식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뽑아 놓은 책.



순화궁

경빈김씨가 현종 13년 12월 간택을 거쳐 입궁했을 때, 시조모(대왕대비 김씨) 혹은 시모(조대비)님이 궁중법도에 따른 복식지침서로서 내린 것(김용숙 1987)

자락쭈치는 뉴청은 자덕저고리의 차고 백
은 춘추동의 다 차는 나라

자락쭈치는 뉴청은 자덕저고리의 차고 백
은 춘추동의 다 차는 나라

* 자락쭈치: 자라 모양의 주머니 노리개
[자라주머니(노리개)는 유청색은 자주색 저
고리에 차고 백색은 춘추동(春夏秋冬: 봄, 가
을, 겨울)에 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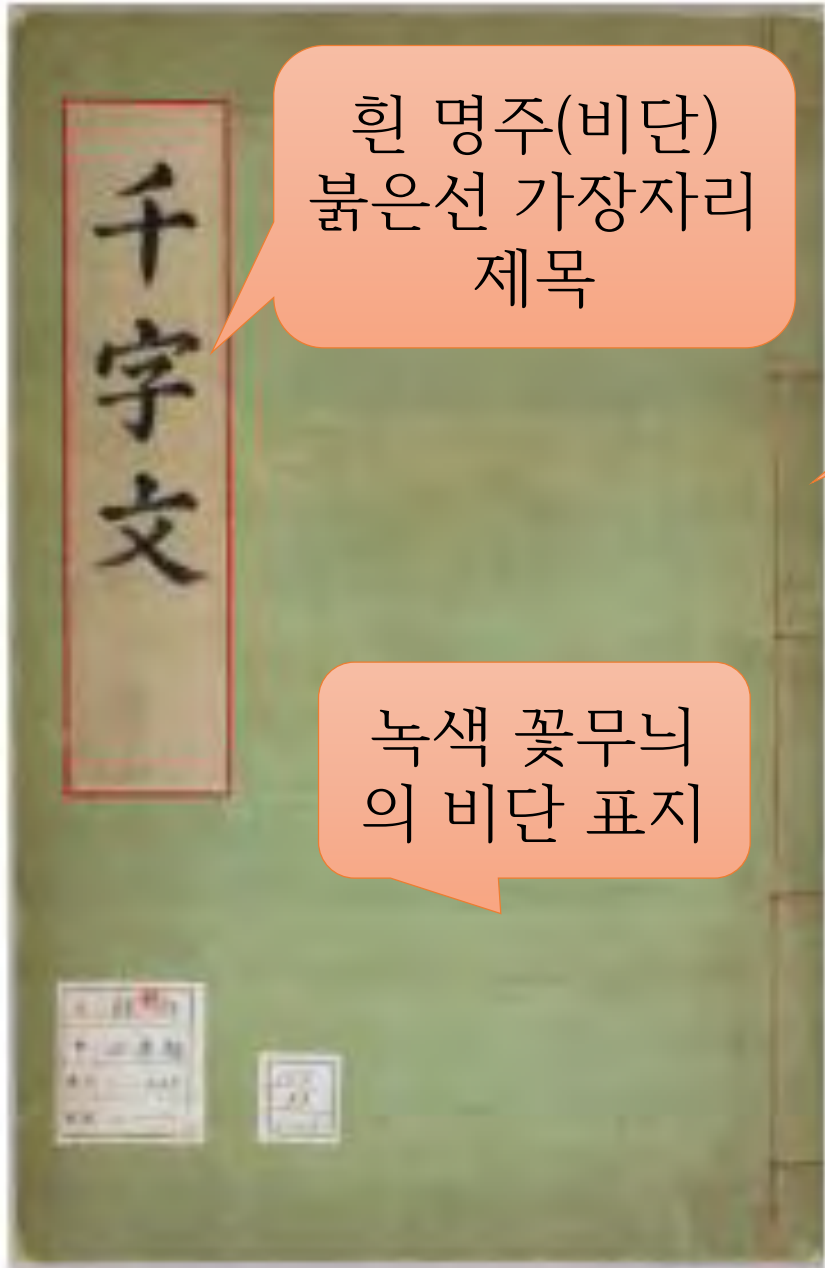


덕은공주 자라쭈치노리개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c. 돌상에 올린 왕실 천자문 『천자문』 (장서각 소장)

- 『천자문』은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아 글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한자를 학습하고 글씨를 배우는 교본으로 삼았던 책임.
- 왕실에서도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세자이던 시절까지도 <천자문>을 왕세자 교육용을 널리 활용되었음.(육수화 2018)
- 여기서 소개하는 왕실 천자문은 색지를 이용해 화려하게 제작한 책 것으로 돌잡이용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됨.(안병희 2001, 박부자 2002)
 - * 돌잡이: 첫돌에 돌상을 차리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일.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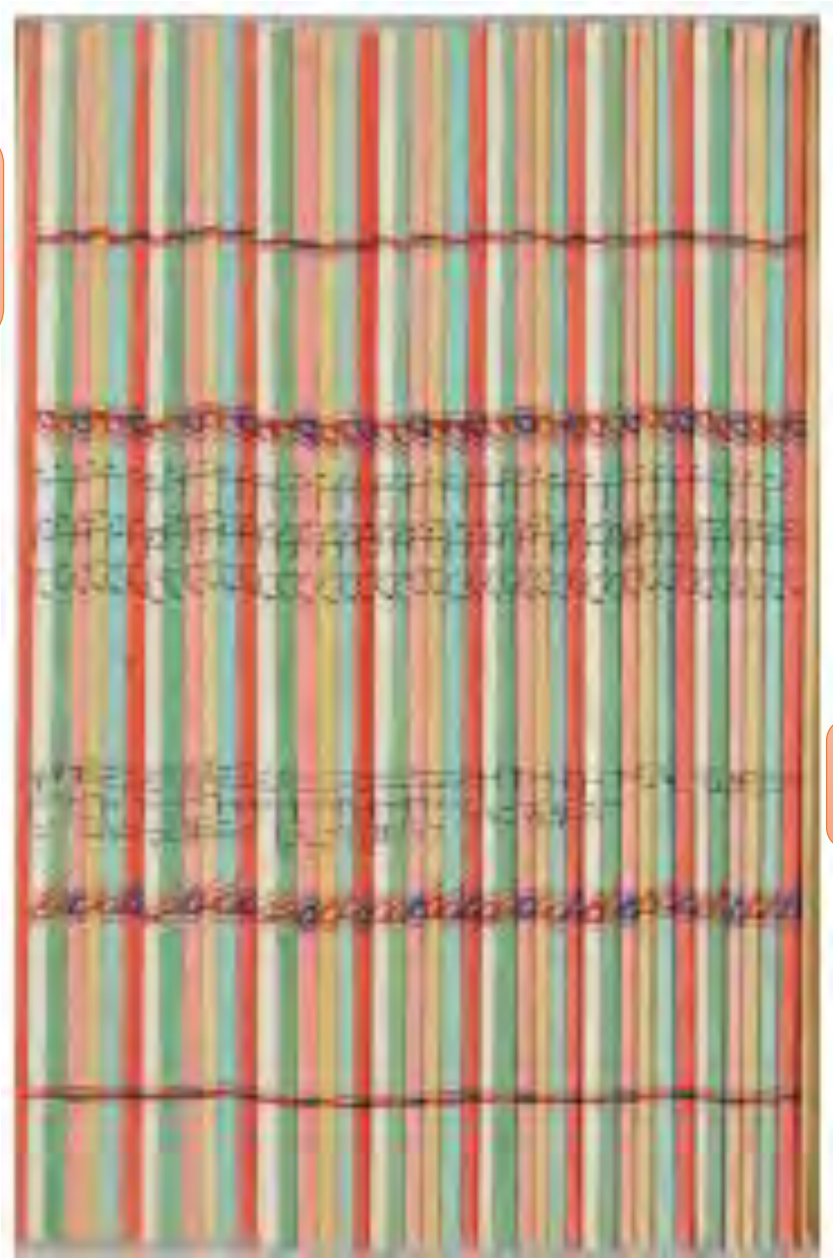


흰 명주(비단)
붉은선 가장자리
제목

녹색 꽃무늬
의 비단 표지

왕실 천자문 표지

진홍색의 실
로 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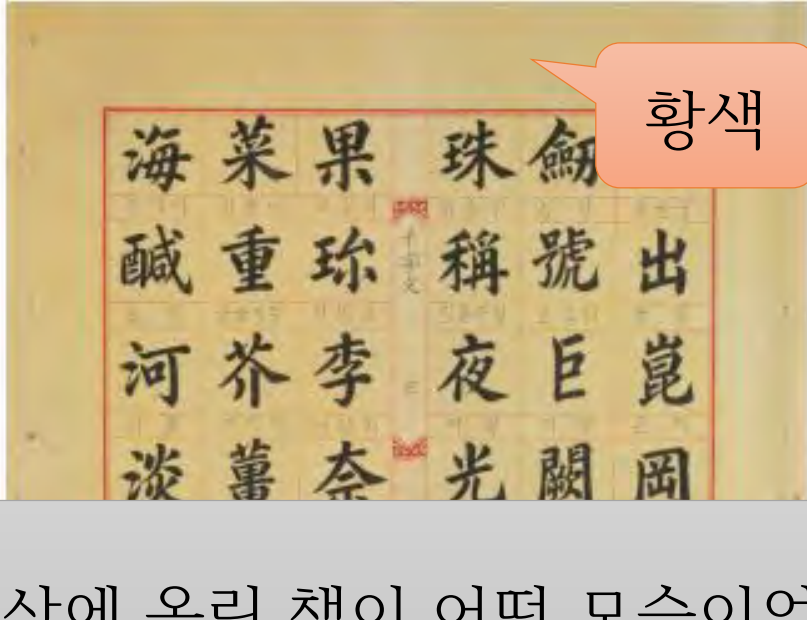
6가지 색지

측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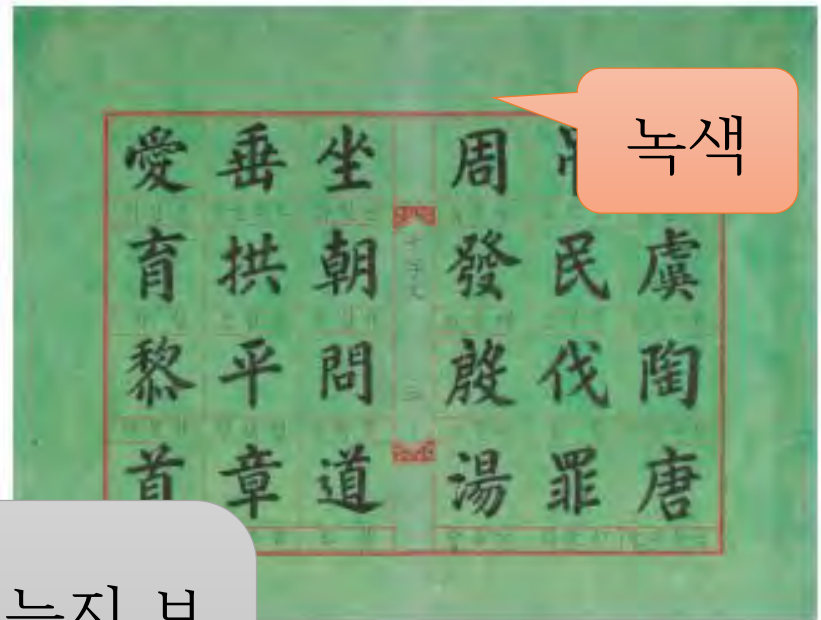


적색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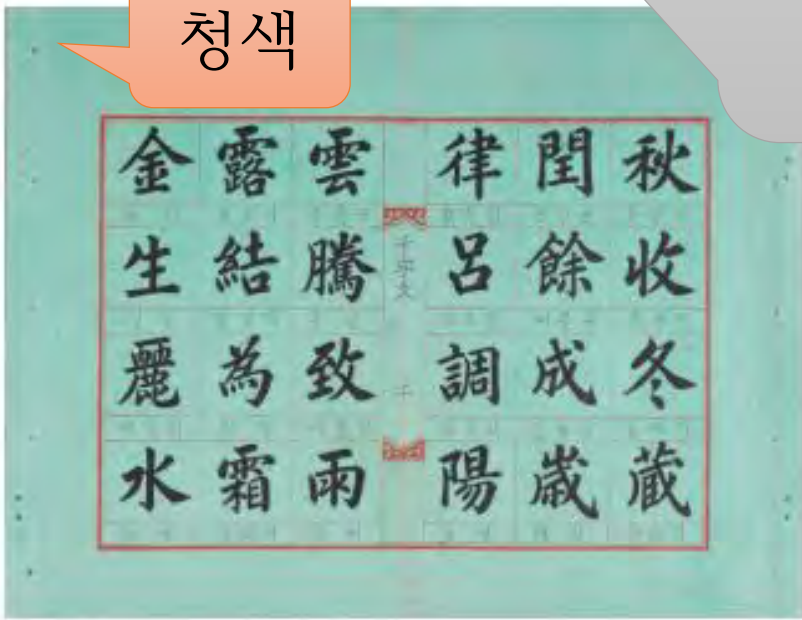


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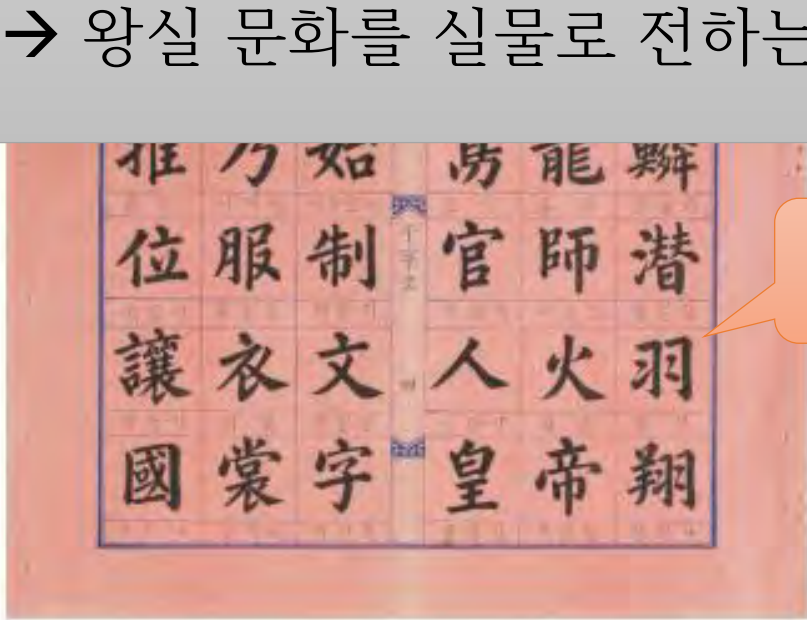
녹색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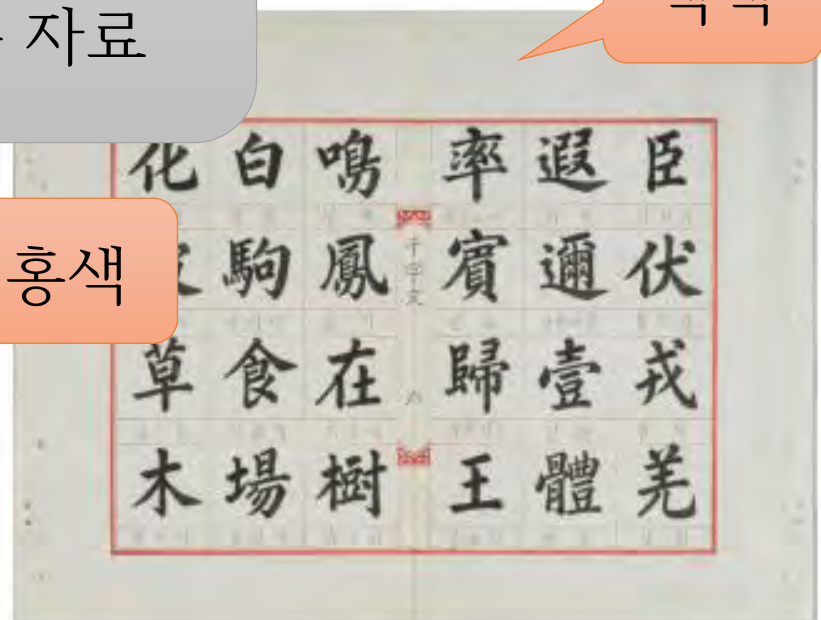
청색

제2장



홍색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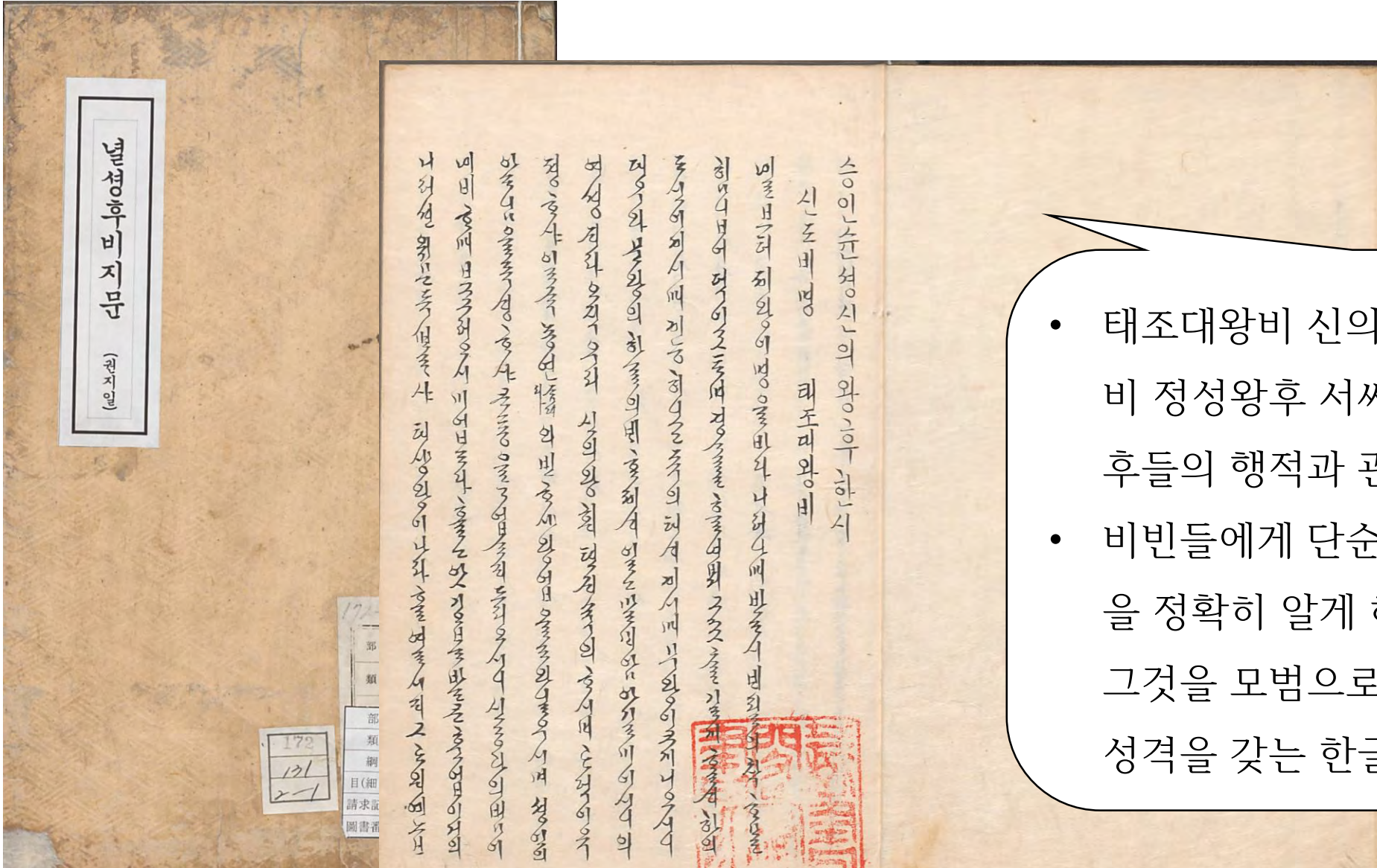


백색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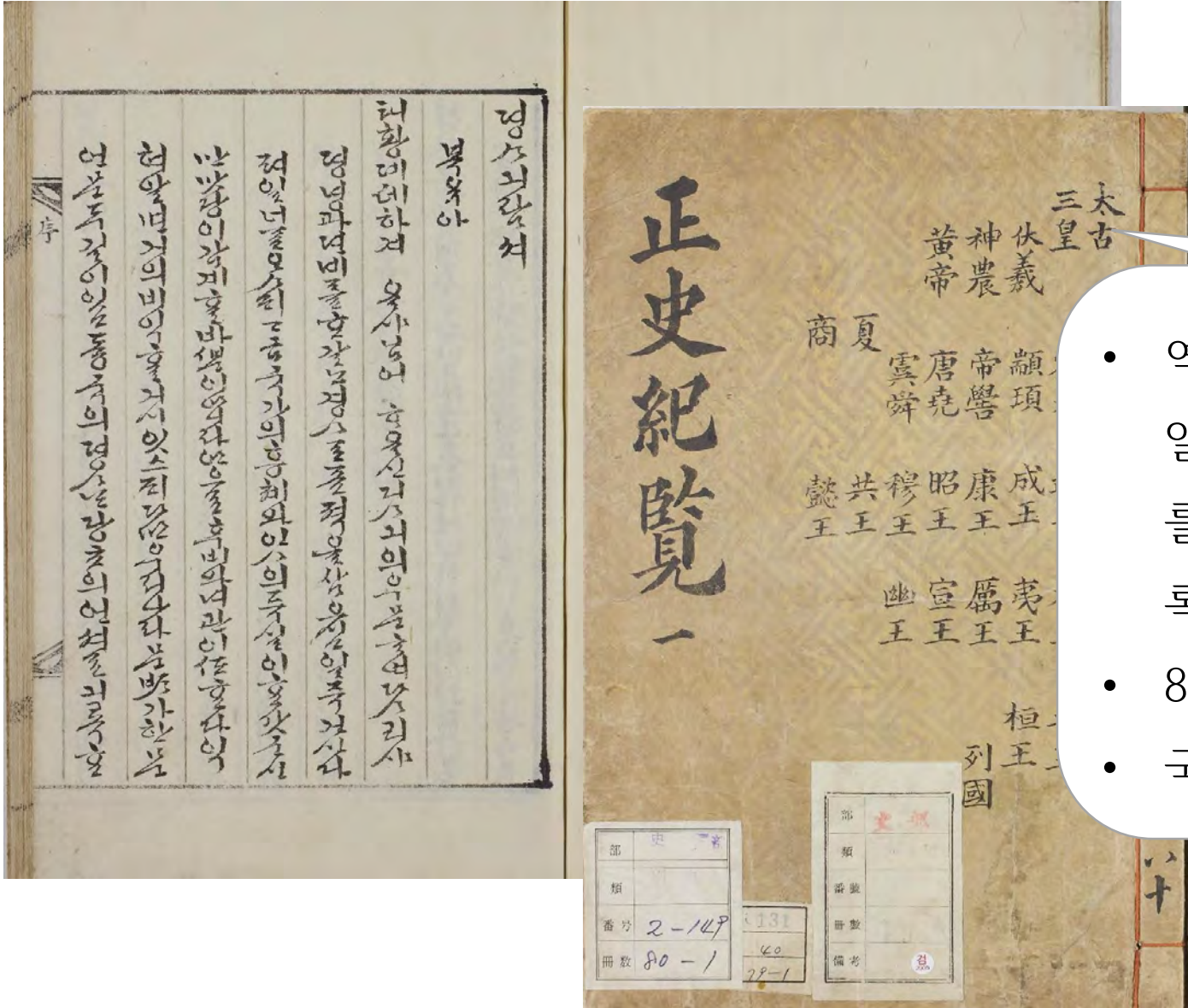
돌상에 올린 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실물 자료
→ 왕실 문화를 실물로 전하는 자료

d. 왕실 여성의 교육 자료 『녘성후비지문(列聖后妃誌文)』(장서각 소장)



- 태조대왕비 신의왕후 한씨부터 영조대왕비 정성왕후 서씨까지 총 31명의 역대 왕후들의 행적과 관련된 글을 수록.
- 비빈들에게 단순히 역대 왕비들의 행적을 정확히 알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도록 하는 여훈서적 성격을 갖는 한글필사본(박부자 2001)

d. 왕실 여성의 교육 자료 『정사기람(正史紀覽)』(장서각 소장)



- 역사의 귀감이 후비(后妃)와 여관(女官)도 익히 알면 도움될 바가 있으므로, 중국의 정사(正史)를 한글로 번역하여 육궁(六宮)에서 쉽게 읽도록 함.(황문환 2022)
- 80권 80책의 거질임.
-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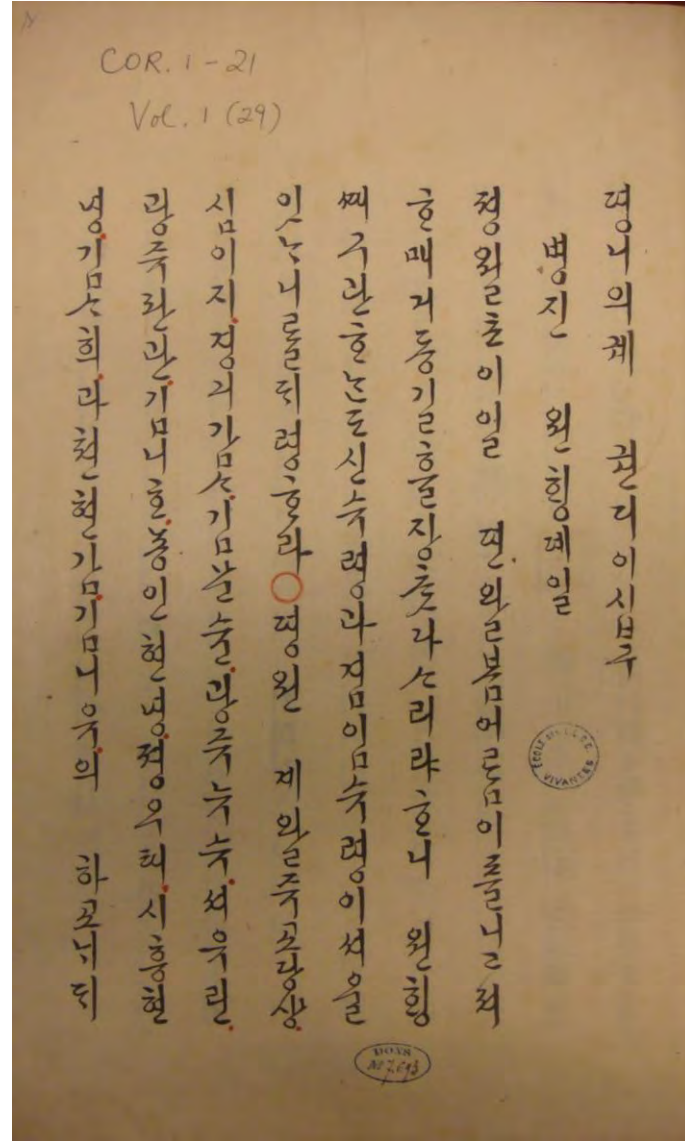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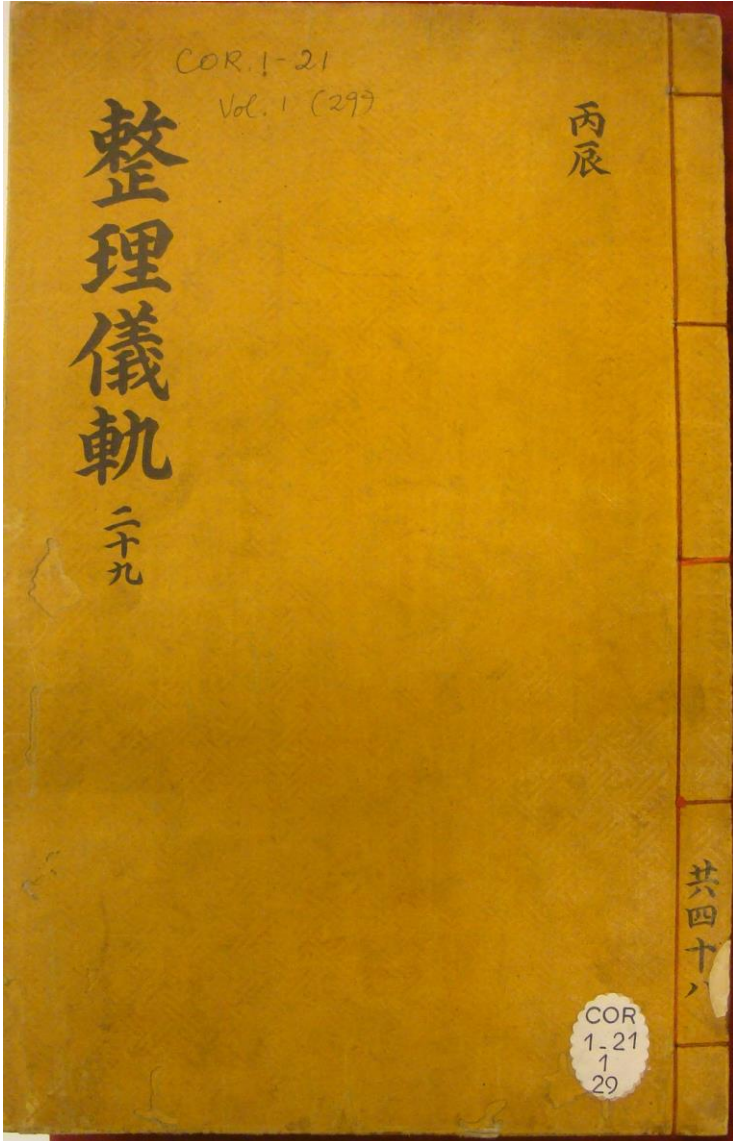
2.3. 국왕 및 왕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

→왕실의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한글본 의궤나 왕실 발기 등 왕실의 의례와 관련하여 제작된 한글 자료가 대표적임.

2.3. 국왕 및 왕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한글본 의궤

- “의궤”란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책.
- 본래 한문으로 작성되지만, 한문본 의궤를 언해한 한글본 의궤가 2종 전함.
 - ① 『경리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파리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 39권은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 ② 『궐경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8, 규장각 소장)
- 왕실 여성과 왕세자를 위해 제작하였음.

a. 한글본 의궤-『경리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파리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



- 정조대에 있었던 현릉원 행차, 혜경궁 홍씨 탄신 축하, 수원 화성 성역(성을 쌓거나 고침)에 관한 일을 기록한 의궤
- 중궁을 비롯한 왕실 여성의 열람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옥영정 2008)

整理儀軌

三十九

城

경주의뢰 권지사부
화성성역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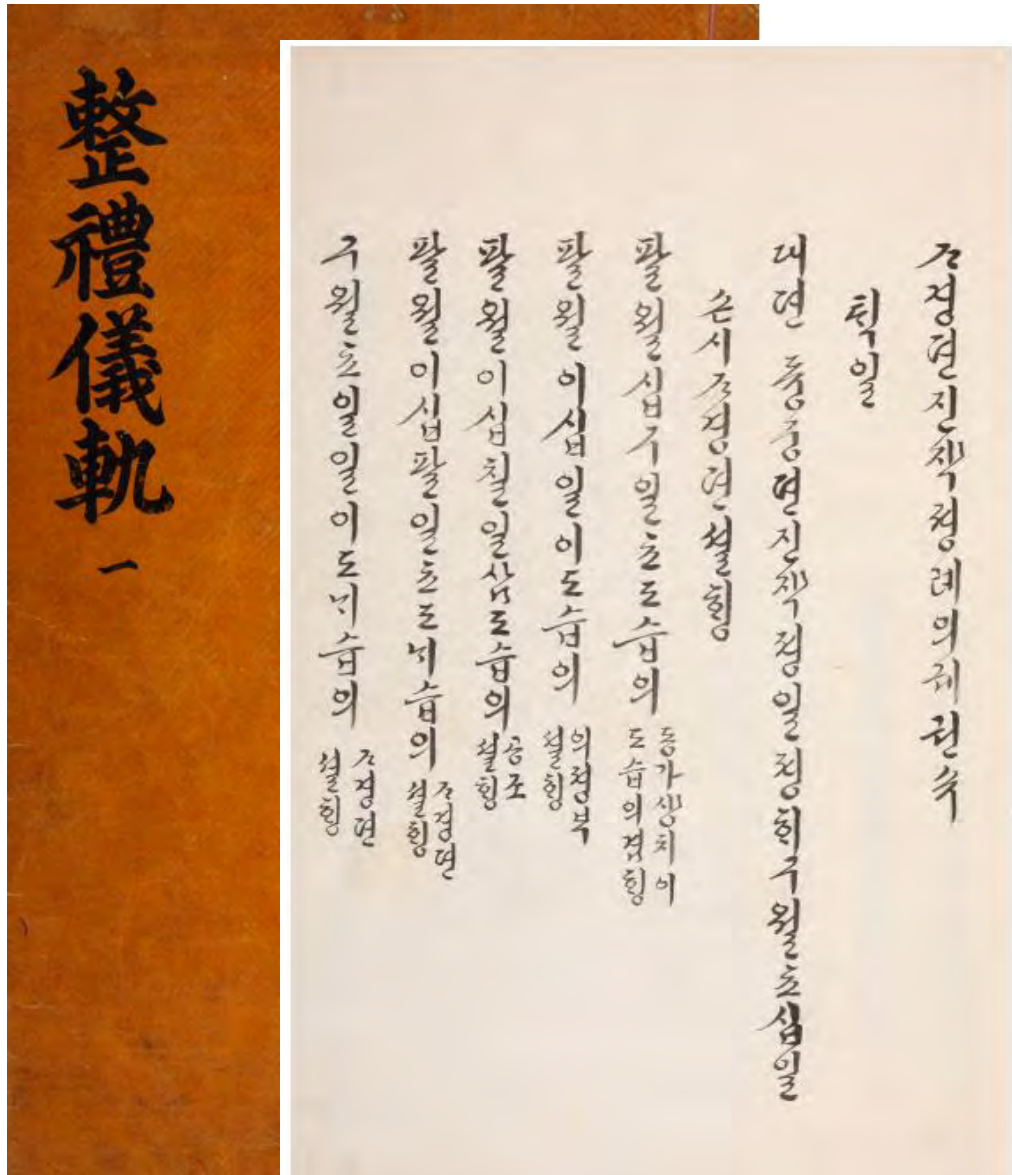


차양문외도



차양문외도

a. 한글본 의궤- 『자경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규장각소장)



- 1827년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순조 내외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자경전에서 행한 잔치에 대한 기록.
- 중궁전과 왕세자에게 읽히기 위해 1828년 한글본을 제작.
- 당시 한글본이 총 3건으로 제작되었음.

b. 왕실발기

- “왕실발기”는 왕실에서 소용될 물품 혹은 소요된 물품의 목록과 그 수량을 적은 기록물을 말함.
- 주로 국왕과 왕실 가족의 결혼, 장례, 제사, 돌잔치, 탄일(誕生日: 생일)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음.
- 발기는 해당 행사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도 하고, 혹은 사후에 작성하기도 하였음.
- “발기”는 ‘발긔, 件記, 發記, 撥記, 拔記’ 등으로 표기되었음.

(2) 왕실발기

- 불기 → 불+기(‘記’의 한자음)
 - 불 (>벌) : 옷 한 벌(衣一襲, 옷 한 벌) <삼강행실도언해(1481)>
 - 물품의 세는 단위로 쓰인 어휘
 - ‘불기’라는 어휘는 “물품의 수에 대한 기록”을 의미함.
 - 이러한 명칭처럼 ‘불기’는 복식, 음식, 그릇, 가구 등의 물명이나 인명 등의 목록과 그 수량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왕실발기

- ‘件記’ 및 ‘發記, 撥記, 拔記’는 한자를 빌려 ‘불기’를 적은 차자표기
 - 件: ‘불’에 대한 훈으로 읽은 표기
 - 記: ‘기록하다’를 뜻하는 한자
 - 發, 撥, 拔: ‘발(< 불)’의 음을 빌려 읽은 표기
 - 記: ‘기록하다’를 뜻하는 한자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진주낭자 이슬 나흔한나

東宮媽媽
 龍膏背
 嬪宮媽媽
 翟衣膏背
 圓衫膏背
 唐古衣
 赤鷄
 珍珠扇
 珍珠琅子
 一次

唐古衣膏褶二次 草綠漢緞
 翟鷄五十一條 鴉青漢緞
 真珠縮一次 多紅漢緞
 真珠琅子一次 多紅漢緞 唐金絲二次
 多紅鴛鴦琅子一次
 柳青漢緞枕唐香囊二次
 草綠漢緞香匣五雙
 多紅漢緞香匣五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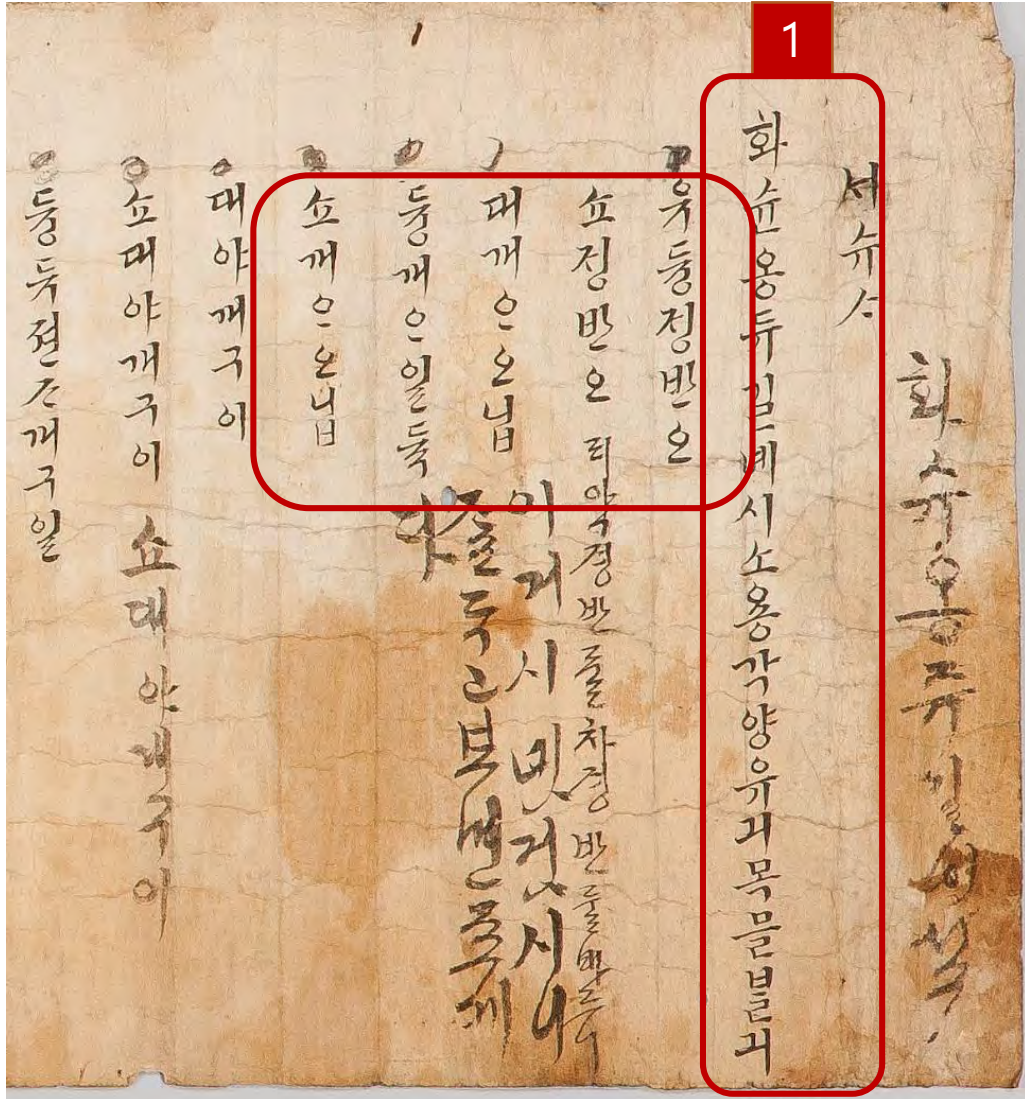
- 동일한 내용이 한글과 한자 두 가지로 모두 작성되기도 하였음.
- 동일한 내용의 한글본과 한자본 중 한글본이 우선함.
- 내인이 한글본 작성[1242] → 내관이 한자본 작성[1226] → 하급 관리가 한자본 재작성[1227]의 순서로 작성됨.(김봉좌 2016)

1732년 <니슈스 화순옹주 길네시 소용 각양 유기 목물 불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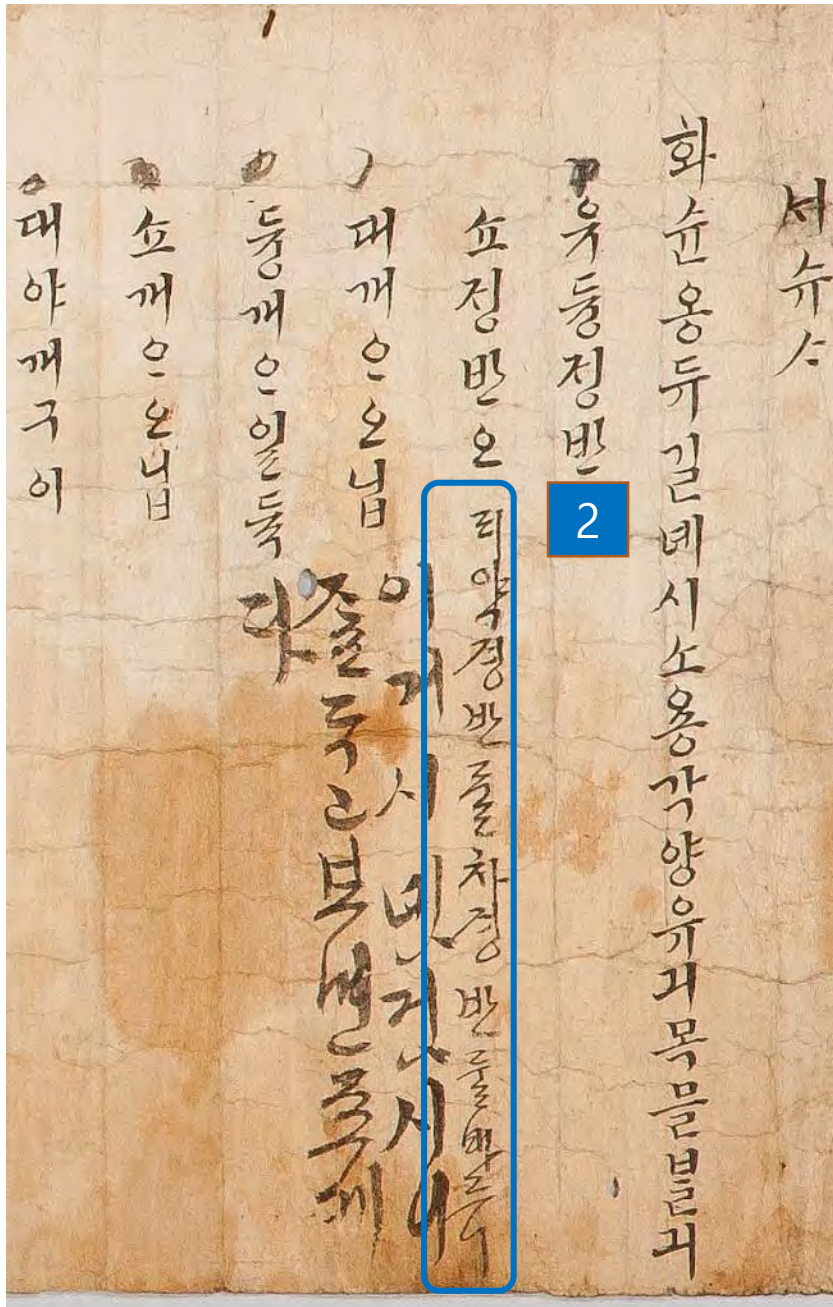
- 내수사(內需司: 조선 시대에, 왕실 재정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에서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 가례 때 마련한 유기(鋤器: 놋쇠로 만든 그릇)와 목물(木物: 나무로 만든 제품)의 목록을 적은 것
 - * 화순옹주: 영조가 왕자이던 시기에 숙종 46년(1720) 3월 8일에 영조의 둘째 딸로 태어나 13세 때인 1732년 11월 29일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과 혼인
- 1732년에 작성된 것으로, 현전하는 왕실발기 중 가장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왕실발기의 실재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박부자 2022)

1732년 <니슈스 화순옹두 길네시 소용 각양 유기 목물 불기>



- 1 → 제목과 내용의 본문을 적은 부분
- 화순옹주 길레 때 쓸 유기(눅쇠그릇)와 목물(나무로 만든 물건) 등의 목록과 그 수량을 적은 것
- 애초 작성된 내용임.

유등징반 오 [눅쇠로 만든 중간 크기 쟁반 5]
쇼징반 오 [작은 크기 쟁반 5]



2

→ 이 목록과 함께 물건을 받은 수신처에서 물건과 목록을 확인하면서 그 차이를 기록해 놓은 것.

→ 길례 당시의 기록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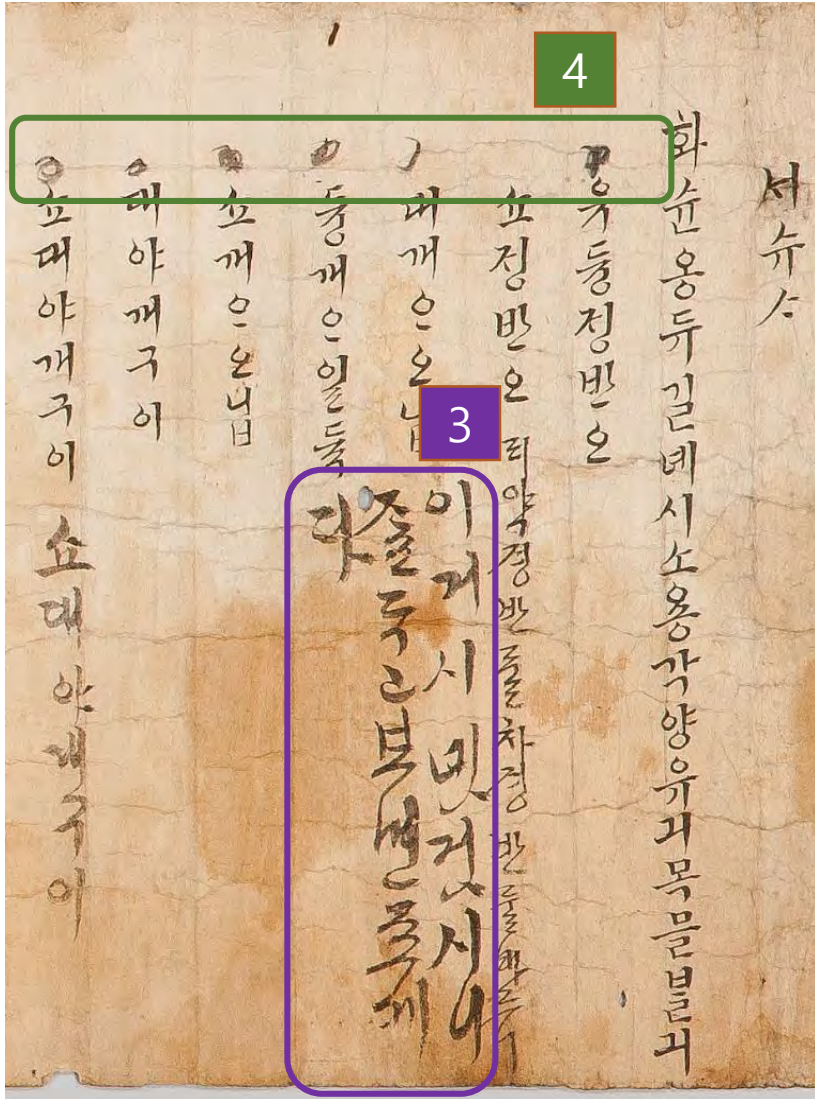
유등징반 오

쇼징반 오 【디약쟁반 둘 차쟁반 둘 받앗음】

[소쟁반 5 【큰 약쟁반 둘, 차쟁반 둘 받았음.】

→ 목록에는 “소쟁반 5”라고 되어 있으나 큰 약쟁반 둘, 차쟁반 둘을 받았다고 기록함.

1732년 <니슈스 화순옹두 길네시 소용 각양 유괴 목믈 불긔>



3

- 후대의 기록(19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됨.
- 먹의 농도나 글씨 크기, 글씨체가 모두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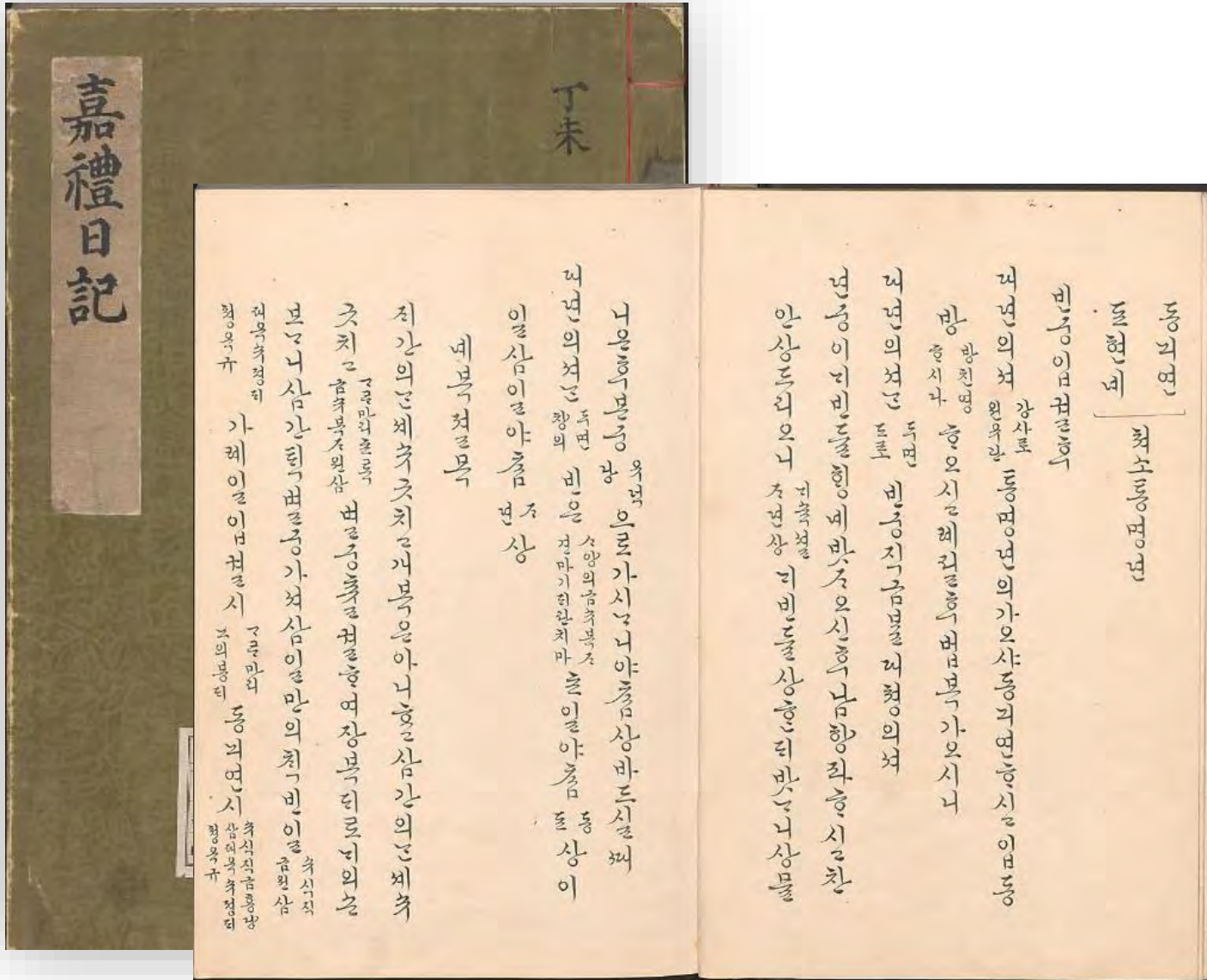
이거시 밋것시니 즐 두고 보면 죠게다

[이것이 밋것(바탕이 되는 것)이니 잘 두고 보면 좋겠다.]

4

- 목록과 물품을 확인하면서 표시한 것.

1847년 『경미가례시일기』(장서각 소장)



- 책 형태의 왕실발기
- 정미년(1847년)에 치러진 현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가례와 관련된 왕실발기를 모아서 편찬.
- 가례의 절차, 소요 품목, 궁녀의 역할 분담 등을 수록
- 문화관광부 선정 '100대 한글 문화유산'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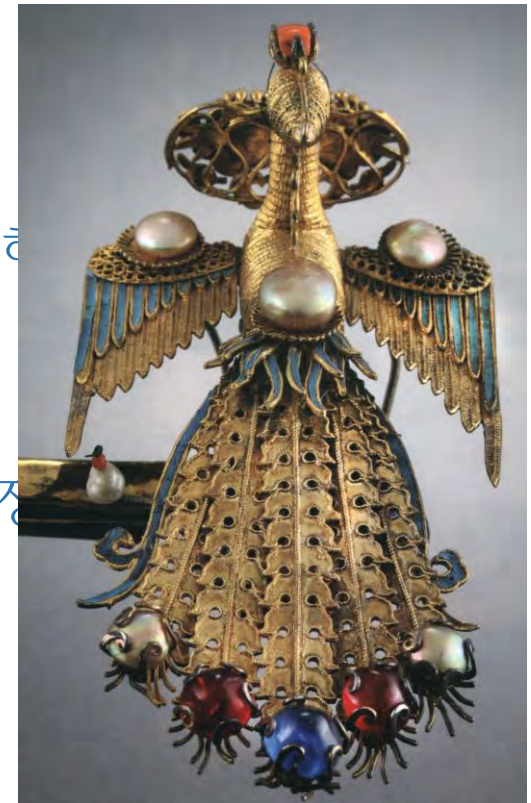
십일월 이십륙일 관네 시
큰 머리 칠보

- 도금 니스 대봉잠 일
- 도금 니스장 옥가난화잠 일
- 도금 니스 대목련잠 일



[큰머리 칠보]

- 도금 대봉잠 1개
(비녀 머리에 봉황(鳳凰)을 장식하고 도금하
긴 비녀. 큰머리 뒤에 장식)
- 도금 니사장 옥대목련잠 1개
(비녀 머리를 옥으로 만든 목련 모양으로 장



(유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십일월 이십륙일 이십륙일 관네 시
큰머리 칠보

도금 니스 대봉잠 일

도금 니스장 옥가난화잠 일

도금 니스 대목련잠 일

도금 니스 대봉잠 일

도금 니스장 옥가난화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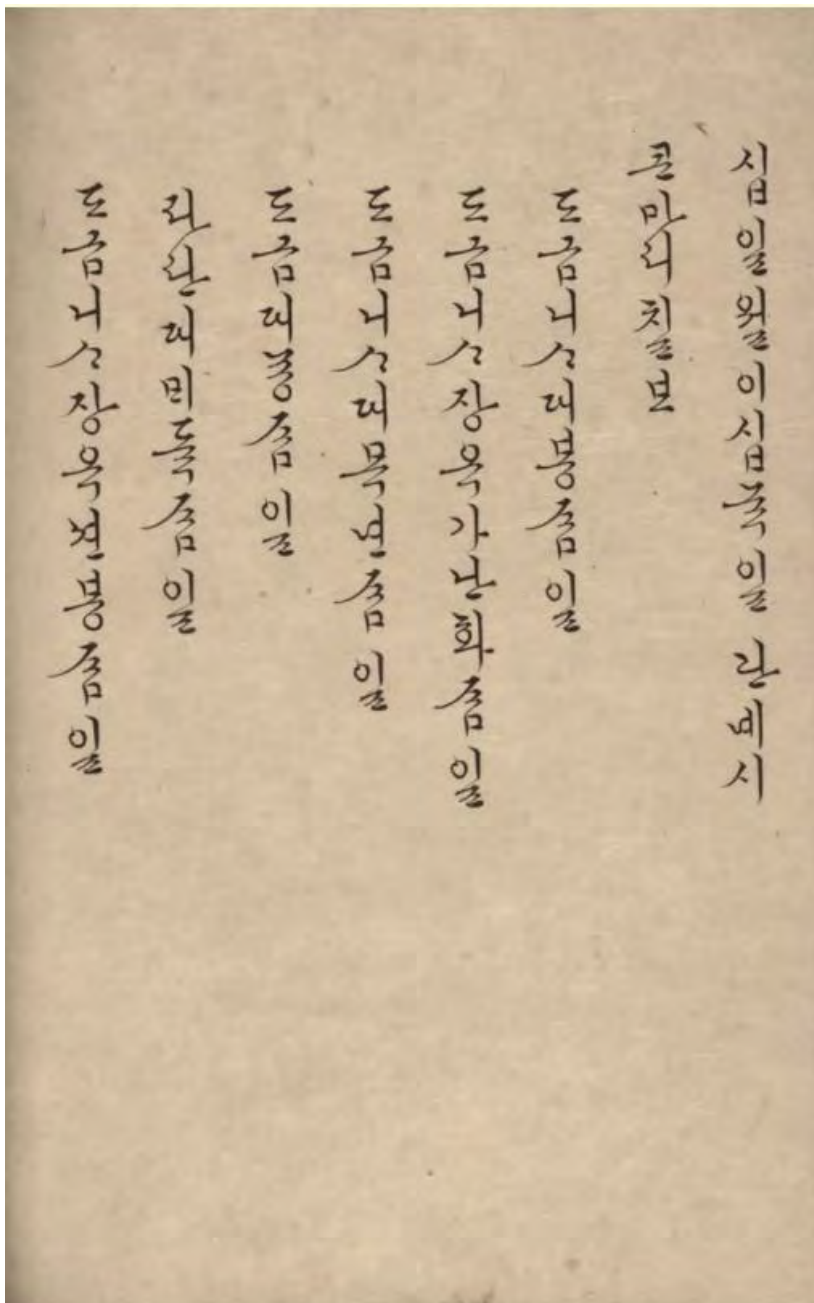
도금 니스 대목련잠 일

도금 대농잠 일
 파란 대미дук잠 일
 도금 니스장 옥션봉잠 일

[도금 대용잠 1개
 (비녀 머리에 용(龍)을 장식하고 도금)
 파란 대매죽잠 1개
 (비녀 머리에 파란 장식을 한 매화와 대나무잎 모양을 새긴 긴 비녀)]



(유물:
 국립고



동미가례시일과 30b

1932년 <의디목록>과 <반상목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1931년 12월 29일 탄생한 왕손(王孫) 이구(李玖, 1931-2008)의 첫 돌에 올려진 돌복과 음식을 기록한 것.
 - * 이구 (李玖) :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英親王, 1897-1970)과 일본 황족 이방자(李方子, 1901-1989)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 현재 전하는 왕실 발기 중 가장 후대의 것임.

(2) 왕실발기

- 이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실발기는 직물, 의복, 장신구, 음식, 식기, 병풍, 부채, 가구,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벼루) 등 당시 왕실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음.
- 색지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백지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왕실발기와 한글본 의궤는 왕실의 의례와 행사 진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임. (황문환 2016)

3. 왕실 한글 자료의 가치

→ 황문환(2016)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필사본의 가치”

- (1) 왕실 한글 문화를 실물로 전하는 자료
- (2) 왕실의 의례와 행사 진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 (3) 왕실 인물(특히 여성)의 교양과 독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
- (4) 궁중의 한글 서체를 보여주는 자료

3. 왕실 한글 자료의 가치

- 이번 강의에서 다룬 “왕실 한글 자료”도 (판본도 존재하지만) 한글필사본인 경우가 많고 왕실한글자료는 장서각 소장본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필사본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왕실 한글 자료는 궁중어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
- 왕실 한글 자료는 민간에서 쓰지 않는 별도의 어휘, 즉 궁중어를 반영하고 있음.
- 왕실 한글 자료를 통해 궁중어 사용의 실재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중어의 형성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음.

① 궁중어 사용의 실제

- 수라

→ <표준 국어대사전>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

→ 대상 : 임금 / 성격: 존칭 어휘

→ 왕실 언간에서 왕비가 자신의 밥을 가리킴. (조정아 2016: 193)

슈라도 작작 하나 즈로 먹으니 이제란 근심 마라

<숙명신한첩-44, 1663년,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① 궁중어 사용의 실제

- 왕손의 돌상에 올린 음식 목록을 적은 왕실 받기에서 왕손의 밥그릇을 ‘은슈라기 <반상목록(1932)>’라 함.
- 제사 음식의 목록을 적은 왕실받기에서 왕후의 제사에 올리는 밥을 ‘슈라’라 하였음.
- 실제 왕실 한글 자료에서 ‘슈라(>수라)’는 왕뿐 아니라 왕비, 왕손의 밥, 제삿밥을 가리켰고 존칭어휘로 쓰이지 않은 예도 보임.

② 궁중어의 형성

❖ 차용어를 민간과 차별되는 궁중어로 사용

• 수라

→ ‘밥’에 대응되는 궁중어로, 몽골어 차용어(이기문 1991: 157~159)

→ 몽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궁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정되어 오직 임금이나 왕비에게 제공되면서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남.(조정아 2016)

② 궁중어의 형성

❖ 동일한 한자어를 궁중에서 민간과 차별되는 다른 의미로 씀.

• 칠보(七寶)

→ 본래 ‘일곱가지 보석’을 가리키는 한자어

→ 왕실 복식 지침서 『숙절복식궐장요람』에서 머리 장식 하는 것을 ‘칠보 씻는 법’이라 하였음.

→ 궁중에서 ‘칠보’는 (칠보로 꾸민) “비녀 등 머리 장식”을 뜻함.

② 궁중어의 형성

❖ 고유어의 차자표기를 한자어화하여 민간과 차별되는 궁중어로 씬.

• 봉디[奉持, 奉只]

→ 한자표기 ‘奉持, 奉只’는 왕실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바디(>바지)’의 차자표기로 볼 수 있음.

→ 차자표기를 한자음으로 읽어 궁중에서 바지를 가리키는 어휘로 ‘봉디’를 쓰게 된 것으로 추정(조정아 2016)

<참고문헌>

- 김문식(2003), 조선시대 왕실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국학연구 2, 한국국학진흥원, 23-47.
- 김봉좌(2015), 왕실 한글 필사본의 전승 현황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39-64.
- 김봉좌(2016),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65, 韓國書誌學會, 291 ~ 330
- 김용숙(1994), 궁중어의 아름다움-<한중록>을 중심으로, 한글 226, 한글학회, 101-128
- 김종훈(1969), 궁중어고, 국어국문학42~43, 국어국문학회, 235-248.
- 김홍석(2007), 국어사전에 실린 궁중어연구, 새국어교육 76호, 국립국어원, 393-418.
- 박부자(2008), 『뎡미가례시일기』의 어휘 (2) : 器皿과 단위명사를 중심으로-, 『藏書閣』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1-138쪽.
- 박부자(2014),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 연구 18, 국어사학회, 45-78.
- 박부자(2014), 복식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45-78쪽.
- 박부자(2015), 한글-삶속에 자리잡다, 한글이 걸어온 길, 국립한글박물관
- 박부자(2015), 왕실발기에 나타난 복식 관련 어휘 차자표기의 한자 운용에 한 연구, 『國語學』 75, 國語學會, 335-372쪽
- 박부자(2019), 왕실발기의 국어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藏書閣』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40-269쪽.
- 박부자(2021), 왕실발기의 형태와 제작목적 -장서각본을 중심으로-, 『藏書閣』 46, 한국학중앙연구원, 6-45쪽.

<참고문헌>

- 박용만(2004), 「英祖 御製冊의 자료적 성격」, 『藏書閣』 11, 한국학중앙연구원, 5-52쪽.
- 배영환(2019), 영조의 어제 훈서류의 언해와 그 의미, 언어학연구 50, 한국중원언어학회, 79-100.
- 백두현(2001), 「조선 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193~218쪽.
- 백두현(2004),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139~187쪽.
- 安秉禧(1999), 王室資料의 한글筆寫本에 대한 國語學的 檢討, 藏書閣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20.
- 옥영정(2008), 한글본 「덩니의귀」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第39輯, 한국서지학회, 139~168.
- 이종덕(2013), 「흥선 대원군이 아들 이재면에게 보낸 한글 편지」, 『문헌과해석』 66, 1-16쪽
- 이종덕·황문환(2012), 「흥선 대원군이 명성황후에게 보낸 한글 편지」, 『문헌과해석』, 2012, 가을호. 36~47쪽
-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 연구 20, 국어사학회, 65-126.
- 황경환(1963), 궁중용어, 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269-293. 김문식(2003), 조선시대 왕실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국학연구2, 한국국학진흥원, 1-26.
- 황문환·박부자·이명은·이은주(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황문환·박부자·이명은·이은주·조정아(2018), 정미가례시 복식어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황문환(2016),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 필사본의 가치, 한글-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황문환(2015), 조선시대 한글편지 언간(諺簡), 역락.